

■ 지방선거 핫코너

김대식 "탄소배출권 거래소 나주 유치"

김대식 한나라당 전남도지사 예비 후보는 17일 "조만간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을 만나 탄소배출권 거래소의 광주·전남 혁신도시 유치를 강력 권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광주·전남 혁신도시 건설지원단을 방문한 뒤 "광주·전남 혁신도시에 한전 산하의 한국전력거래소(KPX)가 이전돼 오는 만큼 전력시장과 배출권 시장의 연계 기능을 고려할 때 탄소배출권 거래소는 반드시 나주 지역에 유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운태 "현지 배심원 비율 늘려야"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17일 "광주 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중앙당의 경선방식을 수용한다"고 전제한 뒤 "현지 배심원 비율을 높이고 배심원단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시민공천 배심원제 운영과 관련 "전문배심원(외지인)과 현지배심원 비율을 1대2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정재 "교육전용 방송채널 만들 것"

이정재 광주시교육감 예비후보는 17일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교육청이 직접 IP-TV를 활용한 교육 전용 방송채널을 만들어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광주시의 사교육비는 전국 1위로 높다"면서 "이는 사교육을 흡수할 대체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지 못한 교육청의 정책 부재에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령애 여성 광역의원 '최우수상'

강진군수 출마를 선언한 국령애 전남도위원이 17일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가 주관한 '민선 4기 여성지방의원 우수 의정활동 평가'에서 광역의원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국 의원은 이번 평가에서 전국 최초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사회적 식품제조 기업인 '콩새미'창업과 규방공예사업단 설립 등을 통해 농촌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힘써 온 점을 높이 평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문일 "귀농인 대책 마련 시급"

김문일 한나라당 전남지사 예비후보는 17일 "연간 역대 소득을 올리는 전남지역 농가들이 늘어났다"며 "관계부처는 이들을 중점 독려하고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이날 "전남의 지난해 국내 농민의 연간소득 조사 결과 1억 원이 넘는 농가는 모두 1천438가구에 달했고, 1년 전 990가보다 45.3%(448 농가)나 급증했다"면서 "이젠 농촌에 희망이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찬용 "남동 인쇄골목 디자인 빌리지로"

정찬용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17일 "광주 동구 남동 인쇄골목을 세계적인 디자인 빌리지로 리모델링 한 뒤 국내 최초 북페어가 될 '광주국제야동도서전시회'를 매년 개최해 전남도청 이전 이후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인쇄 골목 활성화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는 이날 남동을 방문 "매출액 감소와 공동화 현상으로 후·폐업 업소가 급증하면서 몰락위기에 처한 남동 인쇄골목을 창조적인 디자이너들이 모여드는 세계적인 디자인 빌리지로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영을 "광주교육감 선거 출마"

고영을(여·53) 고려대학교 이사장이 17일 6·2 광주시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고 후보는 광주·전남 사·도교육감 선거 후보 중 유일한 여성이다.



고 이사장은 이날 북구 유동 선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생과 교사, 학부모 편에서 서서 광주교육을 바로 세우겠다"면서 "교육계 비리와 교원 쫓겨가기 척결, 교육장과 고교 교장 공모제 전면 실시, 단계적 무상급식 실시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정남 "가로수 특성화거리 조성해야"

이정남 민주당 광산구청장 예비후보는 17일 "광산구 도로변 가로수를 지역별 특성으로 맞는 수종으로 변경 식재해 '가로수 특성화거리'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도심 내 가로수와 녹지공간의 조성은 대기오염과 소음공해 감소, 열섬현상 완화 및 기후조절 등 저 탄소 녹색성장을 주도하기 때문에 수준의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면서 "지역별 특성에 맞게 가로수를 선택한 뒤 가로수의 체계적인 관리로 도심생활공간을 녹색공원화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승용 "초고령화 맞춤형 일자리 필요"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실업자가 2개월 연속 100만 명을 넘어선고 특히 청년 실업률이 10.1%로 10년 만의 최고치를 보이고 있다"면서 "전남의 경우 초고령화 저출산 추세에 어울리는 전남 맞춤형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초고령 사회로 가는 전남은 노인치료와 노인 돌봄 사업을 위해 노인 건강증진센터 등을 설립하고 간병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산모와 신생아도우미 지원, 보육시설 확대 등 노인 복지와 육아 분야의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현섭 "무소속 출마 뜻 밝힌적 없어"

오현섭 전남 여수시장은 17일 "민주당 탈당이나 무소속 출마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여수, 순천, 광양 등 3개 시장이 만난 것과 관련, 일부에서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처럼 추측하고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며 "시장 경선에 대한 민주당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오 시장과 노관규 순천시장이 최근 민주당을 탈당,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이상용 광양시장과 회동한 것을 두고 지역에서는 무소속 출마설이 제기됐다.

전주연 "광주 서구청장 출마"

전주연 광주 서구청장은 17일 "전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행복 서구로 만들 것"이라며 재선 도전을 선언했다. 전 청장은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0만 주민과 손잡고 행복도시, 살기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 청장은 양동, 농성동, 화정동, 관천동 등 신청사 거점을 상업·메디컬 클러스터로 조성하고, 상무 1·2동과 치평동은 호남최고의 비즈니스 허브로, 금호동, 화정4동, 풍암동은 웰빙주거타운, 유덕·서창동 일대는 친환경 역사·문화복합단지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김화진 "남구에 제2의 민속촌 건립"

김화진 민주당 광주 남구 청장 예비후보는 17일 "주요 '유형 문화재 33호 대촌 고싸움' 놀이를 중심으로 남구 대촌지역 일대에 '제2의 한국 민속촌'을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 문화 중심도시와 연계해 민속촌 내에 민속 박물관, 아시아음식 테마파크 등을 조성해 문화 예술 랜드를 만들 것"이라며 "여기에 지식강 주변에 청소년 수련 시설, 공연장 조성으로 남구를 광주 문화수도의 꽃으로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진표기자 lucky@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6.2 지방선거 매니페스토 5대 약속 운동 선언 및 광주·전남·북 매니페스토네트워크 발족 선언 기자회견.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와 광주·전남·전북 매니페스토 네트워크는 17일 오전 11시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 4층 대회의실에서 각 지역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6·2지방선거 매니페스토 5대 약속운동 선언 및 매니페스토 지역 네트워크' 발족식을 가졌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제2 남극기지' 테라노바 베이 확정

2014년까지 3300㎡ 규모

남극 동남단에 위치한 테라노바 베이(Terra Nova Bay)에 세종과학기지가 이은 우리나라 제2남극기지가 건설된다.

국토해양부는 제2남극기지 후보지 2곳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테라노바 베이를 새 과학기지 건설지로 최종 선정했다고 17일 발표했다.

건설·환경·지질 등 각 분야 전문가 22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은 우리나라의 첫 쇄빙 연구선인 아라온호를 타고 지난 1월24일부터 2월10일까지 후보지인 남극 서남단 케이프 버크스(Cape Burks)와 테라 노바 베이에 대한 정밀조사를 진행했다.

남위 74도, 동경 164도의 남극 동남단 로스해에 인접한 테라노바 베이는 접근성과 건설 및 기지 운영의 용이성, 비상사태 대처 가능성, 국제 공동연구 참여를 통한 국제사회 기여도 등 모든 입지 평가항목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 유력 후보지였던 케이프 버크스는 해안의 빙벽으로 접근이 어렵고, 연중 130일 이상 초속 30m의 강풍이 부는 등 기후여



건이 열악해 연구활동상의 제약과 비상사태 전 확보가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반면 테라노바 베이는 해안과 내륙으로의 진출이 쉬워 연구 범위와 대상이 다양하고, 근접지역에 해빙 및 빙원 활주로가 있어 비상시에 항공 운송을 통한 대처가 쉬운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국토부는 테라노바 베이에 2014년까지 건설면적 기준으로 3천 300㎡ 규모의 친환경 기지를 건설할 예정이 다. /연합뉴스

캠벨 "김정일 남은 수명은 3년... 후계구도 불안"

카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가 지난달 방한 중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수명이나 북한의 후계작업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개략적으로 개진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캠벨 차관보는 지난 2월3일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 민주당 장상 최고위원, 탈북자 등과 비공개로 면담한 자리에서 "의학적 소견을 종합해보면 김 위원장의 수명은 3년"이라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캠벨 차관보는 또 북한의 후계체제 구축 작업과 관련해선 '김일성→김정일'로의 권력 승계때와 '김정일→김정은' 승계 과정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참석자는 전했다. 이어 캠벨 차관보는 김정은 권력체제가 확립됐을 때 장성택 북한 노동당 행정부장이 후견인 역할을 할 것이며, 두 사람의 관계가 흔들릴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Large advertisement for 'Kwangju Green' (광주그린) featuring a large image of a green apple and text promoting organic products and local agriculture. The text includes 'Kwangju Green' and 'Kwangju Green' and mentions 'Kwangju Green' and 'Kwangju Green'.